

# “애들과 모 심고 그림 그리고...삶이 곧 예술”

북구 문화의 집 ‘땅과 예술’ 프로그램  
박문종 작가 강사 참여, 농사 예술과 접목  
담양 수북 일대에서 ‘깐지깐지 모내기’ 행사



지난 1일 담양군 수북면에서 열린 ‘깐지깐지 모내기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모내기를 하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함께 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힘들기는 했지만 빈 손에 파란 모가 조금씩 채워져 가자 아이들은 뿌듯함도 느꼈다. 지난 1일 담양군 수북면 송정마을 앞 논에 흥겨운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논 이곳 저곳에는 아이들이 함께 그린 길게 그림이 걸렸다. 이날 열린 ‘깐지깐지 모내기’ 행사는 광주 북구 문화의 집이 운영하는 바퀴달린 학교 ‘땅과 예술’ 프로그램 중 하나다. 박문종 작가가 선생님이로 참여하는 ‘땅과 예술’은 1년간 4계절을 통해 이뤄지는 농사를 예술과 접목시켜 땅의 소중함을 느끼는 어린이 자연예술 활동 프로그램으로 매 주마다 박작가의 작업실이 있는 수북 일대에서 진행된다.



바위에 그림을 그리는 강화명양.

운동장에서 땅그림 그리기 등을 진행했던 아이들은 이날 직접 모내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무논에 들어간 아이들은 낱생 처음 해보는 모내기가 마냥 신기하기만 하다. 긴 시간 진행된 모내기 행사에 끝까지 참여해 ‘일꾼’이라는 칭찬을 들은 강시연(일곱살 3년)양은 “모내기를 처음해 보지만 너무 재미있다. 허리도 아프고 힘들기는 한데, 물결물결한 진흙밭에 들어가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내년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라 불리는 박문종 작가가 논길에 커다란 화선지를 펴고 진흙 덩어리로 고정시키니 근사한 캔버스다, 놀이판이 만들어졌다. 아이들은 진흙이 묻은 손도장, 발도장을 찍으며 즐거워했고, 붓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다. 이날 모내기에는 전남대 철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베트남 학생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바탕 행사가 끝나고 병풍산이 바라다보이는 들판에서 점심 시간이 시작됐다. 수북면 마을 주민이기도 한 임 의진 목사가 하모니카 연주로 ‘대니보이’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려줬다. ‘땅과 예술’반에 땅을 빌려준 마을 주민 이종식씨는 “귀농한 지 얼마안됐는데 광주 정신이 몇

있다”며 “언제든지 빌려드리겠다”고 했다. 박작가가 집에서 키운 열무를 비롯해 동네에서 재배한 각종 야채와 돼지고기 볶음, 감자조림 등 근사한 ‘뚝방’이 차려졌고 어른들 사이에선 막걸리도 한순배 돌았다. 뚝방을 먹고 난 후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도화지를 펴놓고 크레파스로 모내기 했던 논을 그리고 풍경을 담았다. 먹물로 과감하게 추상(?) 작품을 그리는 아이도 있었다.

도화지와 화선지 뿐만이 아니었다. 바위에 작은 돌도 캔버스였다. 작은 바위에 먹물로 멋진 그림을 그리던 강화명(올해 1년) 양이 화선지 위에 먹물을 묻혀 꽃을 그리는데 보통이 아니다. 옆에 있던 김평준 작가가 붓을 들어 사슴발레와 무당벌레를 그렸다. “꽃이 있으면 나비가 있어야지요.” 화명 양의 말에 나비도 얹혀졌다.

아이들과 함께 모내기를 한 정해지 선생은 “도화지나 땅이나 똑같다. 눈에 모를 심는 과정을 거쳐 수확물을 거둬들이듯,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그림을 심는 것”이라며 “농사일은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땅과 예술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도시에서 벗어나 땅, 나무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모내기 행사를 허러 눈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물과 흙을 밟는 걸 좋아해요. 자신이 심은 모가 별탈 없이 자라는지 지켜보기도 하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무언가를 시키기 보다는 아이들 본능에 맡기는데 자연스레 그림을 그리고 땅과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9번째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중인 박문종 작가는 “페트병에 물 넣고 달리며 그림 그리기 등을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즐거워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2년 전 영국 출장길에 리버풀을 찾은 김 순전히 비틀즈 때문이었다. 한때 그들의 음악에 푹 빠졌던 탓인지 ‘비틀즈의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펜실러가 숨이 설했다. 드디어 리버풀에 도착하던 날, 호텔에 짐을 풀고 서둘러 비틀즈의 흔적들을 찾아 나섰다. 도심에서 그들과 ‘만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폴 매카트니가 거주했던 집에서부터 존 레논의 이름을 딴 공방, 애비로드 등 비틀즈의 노래에 영감을 준 장소들, 1961년 비틀즈가 처음으로 무대에 선 캐번클럽(The Cavern Club)이 지척에 있었다.

무엇보다 바다를 끼고 있는 알버트 독의 ‘비틀즈 스토리 박물관’은 핫플레

된 ‘팝의 성지’다. CNN은 ‘BTS 열풍’을 1960년대를 뒤집은 비틀즈 열풍과 비교하며 ‘어쩌면 비틀즈가 이룬 것보다 더 대단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

BTS의 멋진 무대를 유튜브로 관람하다 보니 문득 한달 전 광주에서 ‘직관’했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회기법 콘서트에 떠오른다. 수영대회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열린 이날 광주월드컵경기장에는 BTS, 트와이스 등 한류스타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든 3만 관객(해외팬 1만명 포함)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BTS 무대였다. 광주 출신 멤버인 제이홉이 5월 항쟁을 암시하는 자신의 작사곡 ‘마

## 광주산(産) ‘BTS 레가시’를 만들자

〈유산〉

스였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애비로드 스튜디오와 캐번클럽을 재현해 놓은 세트들이 눈에 띄었다. 비틀즈가 출연했던 뮤직비디오, 오리지널 무대영상, ‘British Invasion’이라는 문구 아래 미국 순회공연 당시 탑승했던 때문은 비행기 좌석까지 희귀한 자료와 유물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비록 비틀즈는 1970년 해체됐지만 여전히 리버풀은 47년 전 그대로인 듯했다. 매년 전 세계에서 그들이 남긴 유산(legacy)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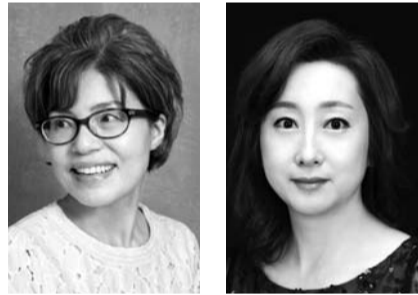
지난 1~2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엠블리의 BTS(방탄소년단)에 쏟았다.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이곳에 한 국가수로는, 아니 비영리인 가수로는 세계 최초로 공연을 한 것이다. 1985년 자신콘서트 ‘라이브 에이드’의 무대로 친숙한 엠블리는 비틀즈·마이클 잭슨·린 등 세계적인 슈퍼스타에게만 허락

시터(Ma city)의 한 대목을 부르자 객석의 팬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부 외국팬들은 콘서트에 앞서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광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에 고무된 5·18 기념재단은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BTS초청공연을 추진 중이다.

최근 광주시가 BTS의 제이홉, 유노윤호, 수지 등 한류 스타를 배출한 광주에 ‘케이팝(K-POP) 스타의 거리’(가칭)를 조성하기로 해 화제다. 일각에선 한류의 지속성을 우려해 부정적 대안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스토리텔링과 지속적인 관심이다. 광주와 소중한 인연을 맺은 BTS를 지역의 레가시로 키우는 건 우리의 몫이다. 비틀즈가 반세기 가 흐른 지금도 리버풀의 브랜도로 살아 있는 것처럼. 〈제작국장·문화전문기자〉

## 피아졸라·구아스타비노 피아노 곡 무대에

이주영·김종미 피아노 연주회  
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이주영

김종미

‘이주영, 김종미 피아노 듀오 연주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연주회의 주제는 ‘아르헨티나 유산’.

김종미 피아니스트의 해설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피아졸라와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가 쓴 피아노 듀엣 곡들로 채워진다. 1부에서는 피아졸라의 ‘비올렌 탱고’와 ‘푸가와 미스테리’, ‘탱고의 역사’를 연주하고, 2부에서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구아스타비노의 ‘세 개의 아르헨티나 로망스’를 무대에 올린다.

이주영은 이화여대 음대 피아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거쳤다. 선화예술학교와

호세대 강사를 거쳐 현재 한국피아노학회 부회장, 국립목포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맡고 있다. 김종미는 이화여대 음대를 수석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만하임 국립음대 대학원, 스위스 주리히 국립음대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갈빈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겸 한국피아노학회 이사도 활동 중이다. 전석 2만원. 문의 010-6331-6834.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 사직공원서 8일 ‘사직대제’

풍년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제례 광주 사직대제(社稷大祭) 봉행 행사가 올해도 펼쳐진다.

광주 사직대제행사추진위원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사직공원 사직단 광장 일대에서 ‘기해년 사직대제 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시와 남구청이 주최하고 배달문화선양회, (사)국조소묘회,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단기 4352년을 맞아 개최된다. 행사는 오전 11시 30분 식전행사로 설장구와 영무를 선보이며 막을 올리고, 낮 12시부터 분향사인 사직대제 봉행을 시작한다.

특히 이날 행사는 매년 단오절에 시행하는 사직단오제와 함께 개최되며, 오전 10시 30분 광주향교에서 출발해 사직공원까지 행진하는 ‘사직단오제 시가행렬’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10-3616-6175, 010-2324-6474.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체험형 융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모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탁옥석 원장)은 광주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광주의 문화산업활성화와 글로벌 콘텐츠 발굴을 위한 ‘체험형 융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국내·외 IP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으로 콘텐츠 및 어트랙션 제작과 5G기반에서 활용 가능한 체험형 융합콘텐츠분야에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자유과제(콘텐츠 및 어트랙션 제작)는 최대 2억 5000만원 규모를 지원하며 VR/AR/MR로 구현이 가능한 국내 및 아시아에 직접 활용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고 지정과제(콘텐츠 제작)는 과제당 1억 원(2개사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5G 기반에서 활용 가능한 체험형 융합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문의 061-610-240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전문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 루팡닭강정

북구 용동동 우방아이유헬스가  
매운맛, 달달한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 010-3844-7145

####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전문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 010-4106-5055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

####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분위  
☎ 062)222-2424, 011-664-2202

####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 062)370-9258

####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치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 062)222-3092

#### 백세쭈꾸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쭈꾸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 061)332-7313, 010-8224-7313

####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시험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 010-6648-8842

####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신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 062)263-5383, 010-6338-5383

####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 청학철학원

북구 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 010-9866-2332

####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죽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죽소품만들기  
☎ 010-3906-1718

####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폼비올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 062)514-6118, 010-5627-6119

####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 꼬아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분위  
☎ 010-9277-2011, 010-4624-8457

####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 062)526-5475, 010-8621-5959

####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 062)432-1324